



편집인 칼럼

귀농·귀촌과 고령화 시대

■ 최운홍 / 한국작물보호협회 전무이사

얼마 전 미국 인구 통계국이 발표한 「세계 고령화 인구 실태 및 전망보고서」는 고령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각국에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제통화기금과 유엔 등 국제기구들이 우려할 정도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출산과 겹치면서 선진국 문턱에 다다른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유엔과 통계청이 발표한 '세계 및 한국의 인구현황'에 따르면 한국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11.0%에서 2050년에는 38.2%로 3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진국(26.2%)이나 세계평균(16.2%)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더욱이 한국의 고령화지수는 2020년부터 126을 기록하며 선진국(117)을 앞지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저출산은 분명 한국 사회 시스템에 많은 변화를 불러올 것이며 은퇴 이후 건전한 삶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 현실 속에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농협, 각종단체 등에서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과 지원, 교육 등이 활기를 띠고 있으며 귀농이나 귀촌을 꿈꾸는 사람들도 꾸준히 늘고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농림수산물식품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1년 880가구에 지나지 않던 귀농가구가 2008년에는 2,218가구로 거의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봐도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귀농이나 귀촌을 결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농촌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농촌

삶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농촌사회에 잘 적응할 지 등 막연한 불안감속에 선뜻 마음을 정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어느 정부기관에서 조사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농촌이주 정착의향'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베이비붐세대(1955-1964년 사이에 태어난 약 900만명) 도시민중 56.3%는 은퇴 후 농촌지역으로 이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정책에 의하면 2020년경 농촌지역은 현재의 중소도시 수준으로 생활기초시설이 정비되고 교통, 통신 등 대도시와의 접근성도 크게 향상됨으로써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게 되고 의료·복지 수준도 도시 수준으로 정비될 것이라 합니다.

특히 도농교류가 더욱 활성화됨으로써 농촌의 전통적 문화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제고되고 자연과 문명이 조화된 삶의 공간으로 더욱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로 발전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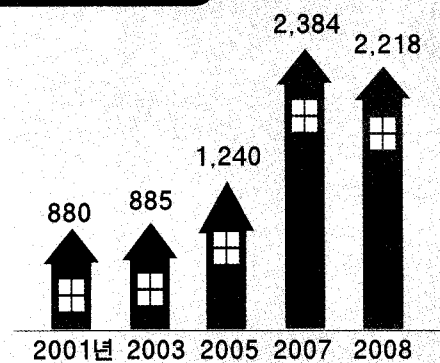
우리나라 미래의 농촌은 지역의 입지조건에 따라 대규모의 전업농마을 뿐 아니라 도시적 편리성과 농촌다움을 갖춘 전원마을, 폐교 등을 활용한 문화예술인 마을, 은퇴마을, 녹색관광마을 등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더해 농촌지역의 주거, 교통, 교육, 의료, 문화공간 등이 종합적으로 정비되어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변모하며 농업인과 타산업종사자, 은퇴자 등이 서로 보완하여 활력 있는 지역사회로 발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도 도시 실업자의 흡수, 고령화시대 은퇴자의 유입 등으로 도시의 인구집중현상을 완화시켜 줄뿐 아니라 식량의 안정적 공급 등으로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사회안전망으로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우리 사회가 탈산업사회로 변모하면서 농업·농촌이 지닌 다원적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중요해 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령화시대와 귀농·귀촌 - 이제 장기적이며 한 차원 높은 정책을 펴야하며 귀농·귀촌을 생각하는 도시민들도 무리한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미래의 새 삶을 그려볼 때라고 생각해 봅니다. Y

연도별 귀농가구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